

축구 손상에서 급성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동반된 반월상 연골 손상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울산대학교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조성도 · 박태우 · 김문찬

서 론

급성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있는 축구 손상 환자에서 반월상 연골 손상의 발생 빈도, 위치, 형태 및 치료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997년 3월부터 2002년 9월까지 울산대학교 병원 정형외과학교실 교실에서 치료하였던 6개월 이내의 급성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있는 환자 중에서 그 원인이 축구 손상으로 손상 후 동측 슬관절에 2차적 손상이 있는 경우, 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는 경우, 과거력상 동측 슬관절에 손상이 있었던 경우, 후방십자인대 손상이 동반된 경우, 관절염이 있는 경우를 제외시킨 42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남자가 39례, 여자가 3례였으며, 평균 연령은 34.2(18~50)세였다. 모든 환자들은 관절경을 이용하여 반월상 연골 손상의 위치, 형태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치료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결 과

반월상 연골 손상이 동반된 경우는 35례(83.3%)였으며, 그 중에서 외측 반월상 연골 손상이 21례(60.0%)였고,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이 8례(22.9%)였으며, 내측, 외측 반월상 연골 손상이 동시에 있는 경우는 6례(17.1%)였다. 위치는 후각부에서 38례(92.7%)로 가장 흔하였고, 형태는 방사상 파열이 11례(26.8%)로 가장 흔하였으며, 중 파열 10례(24.4%)였으며, 치료는 부분 절제술이 26례(63.4%)로 가장 많았으며, 봉합술은 5례(12.2%)였다.

결 론

축구 도중 발생한 급성 전방십자인대의 파열시 외측 반월상 연골 손상 빈도가 내측 반월상 연골 빈도보다 많았으며 수상 당시 경골의 대퇴골에 대한 과도한 전외측 회전이 발생하면서 경골이 정복되는 과정에서 외측 반월상 연골의 손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 된다. 이상의 소견은 축구 손상으로 인한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있는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 된다.